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1월 6일(주일) 제1122호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 넘치는 사랑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 추수감사절 헌물 모집
온누리복지재단, 소외된 이웃 돕는 단체에 전달 예정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흔치며~
♫”(찬송가 308장)

추수감사주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게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동체, 순, 다락방, 부서별로 쌀 등의 추수
감사절 헌물을 모집한다. 성도들이 귀하게
모아 준 추수감사절 헌물은 온누리복지재
단 산하 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단체
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는 11월 19일과 20일 본관 1층 로

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 양재는 19일
오후 4시까지 본당 로비에서 추수감사절
헌물을 모집한다. 부전은 19일 오후 4시 본
당, 대전은 6일과 13일 오후 4시 목회지원
실, 남양주는 19일 오후 1시 본당, 평택은
20일 오전 8시 3층 본당, 인천은 13일부터
19일까지 프리스페이스 3층 목회지원실,
강동은 18일 오후 6시까지 목회지원실, 양
지는 19일 목회지원실에서 헌물을 받는다.
차세대도 각 부서별로 추수감사절 헌물을
모집한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다.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

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다. 신앙박
해를 받던 영국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
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하고 연 3
일 동안의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1904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차 공의회(서울 동
현교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한반도에도 복
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자는 제의가
유래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 참가신청 서둘러야

11월 28일 19시 서빙고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에 등록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다. 300명 모집에 벌써 197명이 신청
했다. 참가신청은 주일 서빙고 온누리교
회 본관 1층에 설치되는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이나 온
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서 하면 된다.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3단계로 진행되
다. 1단계 요청자 기도모임은 11월 7일과
14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되고, 2단계 전도집회는 11월 28일
막 오르는 맞춤전도집회다. 저녁식사, 공
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하고, 가수 윤희주,
방승인 이성미, 배우 강석우, 브라스밴드
브라스통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3단계
는 12월 중에 실시되는 세례교육 및 세례
식이다. 버킷리스트는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이다. 한평
생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에게 잊
지 못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버킷리스
트에 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2주년

오늘 9시, 11시30분 감사예배

오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안광
국) 창립 12주년이다. 오전 9시와 11시30분에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2부에
배(11시30분)는 박종길 목사가 설교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탄생한 캠퍼스 교회다. 2004년 11월 7일 창립
했다. 성도 20명이 모여 시작한 새벽기도모임
에서 태동한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현재 성도
1,000명이 예배드리고 교회로 성장했다.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차세대
양육에 힘쓰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탈북민
과 외국인 이주민 등 외로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북동부 지
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복음화 시키겠다는 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4

한국 해비타트 대표 송영태 장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진짜 목수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목상하는 목수는 사랑의 집을 짓고 있는 진짜 목수다. 한국 해비타트 대표 송영태 장로가 주인공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게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신 15:7-8).

해비타트(Habitat)의 신념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해비타트는 1976년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탄생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고쳐주는 비영리 국제단체(NGO)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6백8십만 명의 보금자리를 지어주거나 고쳐줬다. 한국 해비타트는 1994년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4,300여 세대의 집을 지어주거나 고쳐줬다.

“이보다 기쁜 일은 없다”

송영태 장로는 한국 해비타트 대표다. 그는 해비타트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는 의미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기쁜 일은 없지요”

송 장로는 해비타트 사역을 ‘예수님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는 사역’이라고 정의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에서 가족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꿈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

들이 있는데 왜 대중들이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송 장로는 해비타트에서 일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직장에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생활 하면서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과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한국 해비타트는 직원의 70%는 크리스천이고, 30%는 넌크리스천이다. 그러나 매주 월요일이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린다.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그는 직장이 선교지라는 생각이 강하다. 넌크리스천 직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소망을 품고 있다. 월요일마다 드리는 전 직원 예배가 전도의 장인 셈이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고백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각을 크리스천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영태 장로는 2000년까지 무역계통의 일을 했고, 2001년부터 5년 동안은 두란노서원 대표를 맡았다. 그 후에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한국 해비타트의 대표로 취임했다.

“은퇴를 할 시점이 다가와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훈련 받은 것은 한국 해비타트를 맡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 끝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꿈

“주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고쳐주는 일은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비타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냐고 물었다. 모든 사례가 특별해서 고르기가 힘들다면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전남 화순에 지어줬던 집을 떠올렸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가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었다. 부부와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가 1급 장애인이었다. 둘째는 장애가 있는 오빠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오가는 참 착한아이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주 낡아있었다.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해비타트가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지난 가을에 시작한 공사가 올해 초 마무리 되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자신감이 없고,

웃음조차 없었던 아이들이 새집이 생기니까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요. 새집에서 온 가족이 회복되어서 행복해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송영태 장로는 요즘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도시로 몰리면서 주거비가 높아지다 보니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시원이나 반지하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기숙사도 그 많은 청년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송 장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성북구청과 협의해 약 1,652㎡(500평)을 분할받아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다.

“단순히 청년들을 위한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기숙사를 꿈꾸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각 분야 리더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다면 재능 기부나, 기업들의 후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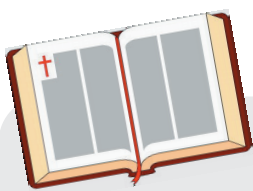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세상에 끝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 전하려는 그의 꿈이 참 근사해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을 단위로 집을 고쳐주거나 은퇴선교사를 위한 주거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집짓기와 송영태 장로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이 시대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덕담도 잊지 않았다.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메일: khj@onnuri.org
문의: 02-3215-319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가장 쉽게 연결하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은 바람직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열정적 신앙일 뿐만 아니라 냉철한 신앙입니다. 냉철한 신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냉철한 신앙이 되지 못한 열정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답을 짓는 것을 시작하겠느냐?”고 비유하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답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건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가치를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유익이며, 무엇이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익계산서

수학자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믿음에 입문할 때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큰 낭패다. 만일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없다고 해도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파스칼은 <광세>라는 묵상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무신론자를 이렇게 비판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에서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탄생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과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게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이 있다가 다시 있게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 아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있다가 다시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처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게 믿는가? 암탉은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지 않는가? 누가 외관상 그 알을 보고 다른 달걀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수탉이 없이 암탉이 알을 잘 낳는 것을 보고는 가능하다고 믿고 왜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믿는단 말인가?” 이것이 논리적인 파스칼의 계산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계산해 봐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계산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성경과 개역성경에서는 ‘여긴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계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Count’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계산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인생의 이익과 손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이익과 손실을 평가해 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인생의 이익으로 여겼던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확실히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5-6절).

사도 바울이 이익으로 여겼던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출생을 통해 얻은 신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요, 이익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삭과 예수님도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 족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족속이라는 것을 자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지만 가장 높이 평가되던 지파입니다. 순수성을 가장 많이 지켜왔고, 바벨론 포로 이후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유대사회의 핵심지파였고, 군대장관은 베냐민 지파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순수한 히브리혈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들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고, 철저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성취에 있어서 최고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의 노력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고,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

도 바울의 인생의 이익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손해항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7절).

유익한 항목들이 어떻게 해로운 항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8-11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지식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전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지식 또한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만일 그 지식을 가짐으로 나만 이롭게 되고, 나만 잘 되고, 잘산다면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 특정계층의 사람만 이롭게 하는 지식도 때로는 고상할 수 있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민족이든지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변화되고, 유익을 얻어야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율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다 합쳐도 주 예수 그리스

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유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둘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8-9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소중히 가치들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지식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은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헛된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유익하지 않았습다. 때때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받은 축복이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나 이익을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있는 선천적인 축복이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이든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될까요. 유익했던 것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고 했더니 그가 “다 행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팔라고 했을까요. 그의 재산은 유익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 유익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We're
The
Onnuri기획_국내 10개 캠퍼스 순방
3 수원 온누리교회

젊고, 역동적이고, 칭찬

탁월한 차세대, 가족 같은 대학청년부, 역동적인 성인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 ... 교회 울타리 뛰어 넘어 지역사회까지!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모여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고, 지역사회와 교계에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주인공은 수원 온누리교회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부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으로 뻗어나간 교회다. 2003년 6월 29일 창립했다. 현재 3,0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수원 온누리교회의 태동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부터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순의 수가 늘어났다. 2003년 수원다락방에는 순이 일곱 개나 있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성도가 절반, 수원들이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절반이었다.

순식구들이 계속 늘어나자 순도 늘어났다. 그만큼 순장이 더 필요했다. 당시 순장학교는 매주 수요일 새벽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는데 거리가 멀다보니 수원다락방 성도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다. 수원 성도들 대부분이 새벽에 출근해서 심야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도저히 그 새벽에 서울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수원다락방 성도들의 순장학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던 리더십들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냈다. 수원에서 순장학교를 열기로 한 것. 학원교실 한 칸을 빌려 목사님을 초청했다. 그렇게 제1회 수원 순장학교가 문을 열었다.

십여 명의 성도들이 공중전화 부스보다 조금 더 넓은 교실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을 보다 못한 한 순장이 상가건물의 일부 공간을 내주었다. 그 공간에는 의자와 TV를 놓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순장공부도하고, 당시 온누리TV로 새벽기도도 드렸다. 자연스레 수원 순장학교가 새벽기도모임이 되었다. 수원 새벽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수원 새벽기도처에 의사 30개를 딱 채우던 날 하용조 목사가 찾아왔다.

“의자 몇 개 더 놓고 캠퍼스 교회 합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6월 29일, 수원 새벽기도처가 정식 캠퍼스로 발돋움했다. 수원에서 순장공부를 한 지 넉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수원 온누리교회가 창립되자마자 부흥의 불길을 걷잡을 수 없었다. 첫 주에 100명, 둘째 주에 200명, 셋째 주에 300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창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배처소가 가득 찼다. 부흥의 물결은 계속 넘실댔다. 아니 거세게 몰아쳤다.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2년 만에 평택순교, 서산순교를 분가시켜 평택 온누리교회와 서산 온누리교회를 낳았다. 이후에도 계속 부흥의 역사를 써오던 수원 온누리교회



수원 차세대 캠퍼스에서.

는 2008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고, 현재는 3,0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미래 이끌어 갈 리더들이 자란다

수원 온누리교회 주일날 풍경은 한마디로 ‘하하호호’다. 교회 어딘가를 가나 차세대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개만 돌리면 차세대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교회에서 차세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데 수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 비결은 차세대 양육에 있다. 수원 차세대는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양육을 가장 잘하는 것이 목표다. 그만큼 차세대 교육

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 수원 차세대들이 교회 곳곳에서 공과공부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엉덩이만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차세대들의 공과공부방으로 변신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옥상, 계단,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공과공부를 한다. 이러한 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감당할 공간이 부족할 만큼 차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수원 차세대는 주일에만 14개 부서에서 1,300명이 예배드린다. 수원 지역 성도들에게 수원 온누리교회가 차세대 양육을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할 만하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차

세대 양육에 더욱 힘쓰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교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차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낮은 세면대와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교회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차세대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원 온누리교회에는 매주 토요일에도 차세대들이 넘쳐난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 학원이나 집에 있을 무렵 수원 차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쑥쑥 자라고 있다.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은 덤이다. 수원 차세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주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꿈이아 놀이터, 센싱더스토리, 샤이닝키즈, 어와나(AWANA), 세계관훈련학교, 어린이JDS, Kid Bible, YDS, King's Kid 등 9개의 프로그램에 300여 명의 차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차세대와 부모들의 주중프로그램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중보기도모임’을 운영한다. 학교중보기도모임은 차세대 새벽기도 ‘7UP’을 업그레이드 시킨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차세대 교역자와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준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근무하는 크리스천 교사들도 참석하고 있다. 부모들을 위한 주중프로그램도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주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차세대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들은 차세대들에게 더 좋은 교육,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센싱더스토리, 어와나(AWANA), 마더와이즈 같은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에서 교육 받고 수료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수원 차세대 교사들은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세대 교사들이 앞다투어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그만큼 수원 차세대에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다.

권오영 성도네는 온 가족이 차세대 교사다. 수원 온누리교회에는 이렇처럼 온가족이 차세대 교사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적인 부모와 교사 밑에서 자란 차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헌신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면 차세대 교사로 헌신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꽤 있다. 그들은 영유아부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받아 마땅한 ‘수원 온누리’

전통도 있다.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는 ‘토요패밀리워십’으로 진행된다. 온가족이 함께 참석한다. 설교도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설교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듯 수원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들이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자라고 있다.

가족 같이 포근한 대학청년부

수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가족 같은 신앙공동체다. 대학부 SEED공동체와 청년부 HIS공동체가 있다. 각각 50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두 공동체를 가족 같은 신앙공동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다. 수원 대학청년부에는 타지에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겨 온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다.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데 수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대학청년부는 새신자들을 맞이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새 식구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새신자들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순모임의 재미도 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수원 대학청년부는 칭찬 받아 마땅한 일도 정말 많이 한다. 차세대를 섬기는 모습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청년부 HIS공동체는 ‘차세대가 선교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웃교회 대신 차세대 캠프 교사로 섬겼다. 대학부 SEED공동체 소속 대학생 중에는 차세대 보조 교사들이 많다. 수원 대학부 SEED공동체 30%가 차세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차세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수원 차세대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교회로비에서 홍보중인 사회선교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탁월함은 예배와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에서 빛을 발한다. 수원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힘껏 헌신하고, 이웃들을 내 몸 같이 섬기고, 돌보고 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삶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말 그대로 빛과 소금들이다.

그 출발은 예배다. 수원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예배 과정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교회가 독려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예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뿐만 아니라 반주자교육, 기타스쿨, 찬양스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도들의 예배 참여도가 대단히 높다. 주일 5부 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는 평신도들이 직접 찬양인도를 한다.

수원 온누리교회 김범준 성도는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심어로 섬기고 있다. 사역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예배가 최우선이다. 주중에 집회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다. 이렇게 헌신적인 성도가 한 둘이 아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감동한 수원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실력도 훌륭하지만 예배를 섬기려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한다.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교회 울타리를 뛰어 넘어 지역사회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이 그 선봉에 있다.

수원 사회선교팀은 독거노인, 수원역 노숙자, 수원역 성매매여성, 춘천소년원, 다문화, 탈북민 가정, 농어촌교회 등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여 명의 성도들이 사회선교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성인공동체 소속 성도 대부분이 사회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선교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역 하나당 2-3개 다락방이 연결되어 섬긴다. 매월 다양한 사회선교를 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는 11월 19일에는 참사랑 학교 발달장애인과 함께 나들이를 갈 예정이다.

여성사역도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큰 몫하고 있다. 수원 여성사역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육군수도병원, 아주대병원을 찾아가 군인들과 환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차세대도 사회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 영아부에서는 매주 미혼모 쉼터를 방문해 미혼모들과 그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나는 이래서 수원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 김정희 목사

어린이들도 사회선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아이들이 100원, 200원 씩 모아 사회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전신익 목사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지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십니다.

/ 차명권 목사

차세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아이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힘이 솟아납니다.

/ 김의득 장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넓히고, 성도 수를 불리기보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 오상록 장로

언제나 열려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 이명화 성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수원 온누리교회에 와서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 유부귀 성도

수원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구분	시간	장소
성인	1부 07:00	3층 본당
	2부 09:00	3층 본당
	3부 11:30	3층 본당
	4부 14:00	3층 본당
	5부 19:00	3층 본당
중등부	09:00	4층 비전홀
고등부	09:00	2층 믿음홀
영아부	1부 09:00 / 2부 11:30	1층 드림홀
유아부	1부 09:00 / 2부 11:30	1층 조이홀
유치부	1부 09:00 / 2부 11:30	2층 소망홀
유년부	1부 09:00 / 2부 11:30	2층 사랑홀
초등부	1부 09:00 / 2부 11:30	4층 경찬홀
소년부	11:30	2층 믿음홀
영어예배	11:30	4층 비전홀
인도네시아어 예배	11:00	인도네시아어 쉼터
SEED공동체 (대학부)	14:00	4층 경찬홀
HIS공동체 (청년부)	15:00	2층 사랑홀

섬기는 사람들

신기섭 담목사	전신익 목사
김종아 목사	조현수 목사
김정희 목사	차명권 목사
이원진 목사	

“초콜릿보다 달콤했던 연애시절로”

갈등하는 부부들을 위한 솔루션 ‘젊은부부학교’



지난 43기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했던 부부.

“싸우는 것도 질린다는 말을 아세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어디서부터 헤어 나와야 하는지 모르는 부부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젊은부부학교다. 말 한마디 안하던 부부, 이혼을 결심한 부부, 결혼한 것을 일생일대 최악의 결정이라며 후회하던 부부들을 초콜릿보다 달콤했던 연애시절로 되돌려 놓는다. 그 놀라운 비결이 궁금해서 지난 10월 29일 젊은부부학교가 한창인 가평 교원비전센터를 찾았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형형색색 물든 단풍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앞에 펼쳐진 잔잔한 호수는 마음까지 빼앗아 갔다. 한 가지 흠이라면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위가 옥에 티였다. 그 예쁜 단풍나무 아래에서 알콩달콩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서로 손을 얼마나 꼬옥 쥐고 있는지, 바라보는 눈빛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 그들에게는 이른 추위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이 아름다운 현상이 바로 젊은부부학교다. 리브레터, 프리포즈, 사랑의 입맞춤...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을 다시 연애시절로 되돌려 놓고 있었다. “남편하고 정말 오랜만에 뽀뽀하는데 너무 좋

더라고요.”

임우성, 한울미(서빙고공동체) 부부의 표정에 행복이 그대로 묻어있었다. 아내 안울미 성도는 요즘 남편 손만 잡아도 좋고, 얼굴만 봐도 사랑스럽다고 한다. 남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할 정도다. 이토록 부부금슬이 좋은 부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사이라면 누가 믿을까. 임우성, 한울미 성도는 결혼 11년차 부부다. 부부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른다. 보다 못한 지인들이 강력하게 권유해서 젊은부부학교 마감 이틀 전에 간신히 신청했다. 바로 그 젊은부부학교가 그들을 변화시켰다.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찬양이 흘러나오자마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왔는데 젊은부부학교가 순전히 그들 부부를 위한 자리 같았다. 조금씩 달아오르는 그들 부부의 마음에 이기복 목사의 강의가 기쁨을 부었다.

“강의를 듣는데 서로를 오해하고, 다투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으로 배우자의 상처와 약점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에 대해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다툼이 계속됐다. 그런데 무엇인가 달랐다. 감정적이던 다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너희 부부를 고쳐줄게.”

그들 부부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 부부처럼 젊은부부학교에서 기쁨을 찾은 많은 부부들이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로 자원하고 있다.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알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들의 마음이 모두 똑같다. 젊은부부학교에 가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다. 부부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도 연출되어 있다.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자기애로의 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와 세족식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자기애로의 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원가족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다. 그 강의를 들은 부부들은 심중팔구 눈물을 흘렸다. 바로 이어지는 세족식은 백미 중의 백미다.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다.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희망을 노래하게 된다.

더 이상 문제도, 위기도 아니다

젊은부부학교 덕분에 부부관계를 회복한 부부가 여기 또 있다. 조동화, 연미영 부부는 6년 전 이혼을 결심했었다. 그만큼 갈등이 심각했던 부부가 젊은부부학교에 와서 달라졌다. 한 줌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들이 젊은부부학교에 오게 된 사연도 재밌다. 첫째 아들 친구의 엄마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조동화, 연미영 부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했다. 교회에 거부감이 있었던 남편 조동화 성도는 첫 주만 참석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들 부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는 조장 부부를 보고 마음을 사로잡혔다. 교회와 관련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는데 그날

들은 찬양과 강의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감격 그 자체였다.

“강의를 듣고 집에 가려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차에 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 음료수 두병과 초콜릿, 과자 등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는 사랑이 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6년 전 일이다. 그들 부부는 젊은부부학교를 수료하자마자 교회에 등록했고, 부부동반으로 세례도 받았다.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로도 섬겼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를 수료한 지 4년 만에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두 번째 이혼의 위기였다. 또 다시 찾아온 위기는 서로에게 더 큰 실망감을 가져다 줬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때 같은 공동체 소속이던 한 부부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언어들을 다시 해석해줬다. 그제야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자 또 다시 희망이 보였다. 그들 부부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위기도 위기가 아니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덕분이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의 중보기도도 한몫했다. 이처럼 젊은부부학교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면 연애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함께할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로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하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요. 일상에 지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낯설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오빠와 내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랑이 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품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함께 걸어갈 남은 여생동안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열심히 살아요. 나의 평생 동반자인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해요”

/ 아내 노민정 드림

젊은부부학교는 1993년 신혼부부학교로 시작했다. 결혼 12년차 이하의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44회를 운영했고, 약 1,500쌍 이상의 부부가 수료했다.

문의: 이성희 팀장 010-4202-8067

양재 사랑부가 이주민들을 만났을 때

안산 만남의 광장에서 전도집회 'K-festival' 개최

장애인 예배공동체 양재 사랑부와 외국인 이주민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누가 누구를 만나든, 연약하든 강하든, 말이 통하든 안통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지난 주일(10월 30일) 경기도 안산 만남의 광장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만남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장애인 예배공동체 양재 사랑부가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 'K-festival'을 개최했다. 경기도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다. 그래서 안산을 '땅 끝'이라고도 부른다. 전도집회 'K-festival'에는 외국인 이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재 사랑부는 성심성의껏 준비한 악기연주, 노래, 수화공연, 마음을 담은 꽃 등을 선물로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는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넘실댔다.

국악연주가 전도집회 K-festival의 포문을 열었다. 신명나는 국악연주가 울려 퍼지자 안산 만남의 광장 주변에 있던 이주민들이 공연장으로 몰려들었다. 중국에서 온 이주민 할머니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다. SUM(몸 찬양)과 한국무용 공연도 이어졌다. 신나는 찬양이 흘러나오면 공연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몸을 들쭉였다. 중국에서 온 김동진 씨가 율동을 어찌나 열심히 따라하던지 보는 사람도 덩달아 흥겨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양재 사랑부 지체들과 사랑부 교사 42명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손에는 밤벨이 들려 있었다. 이주민들의 이목이 한 순간에 집중되었다. 밤벨로 아리랑을 연주했다. 국악과 건반연주에 맞춰 밤벨을 흔들었는데 천상의 하모니가 따로 없었다. 다음 곡은 찬양 '임재'였다.

“이곳에 임재하소서~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과 함께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전달됐다. 다음은 수화공연이 이어졌다. 양재 사랑부 정범준 학

생의 인도로 사랑부 지체들이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에 맞춰 수화공연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공연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해맑은 사랑부 지체들의 표정도 외국인 이주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한몫했다. 중국에서 온 현용환 씨는 “장애인들의 연주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면서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멋진 공연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옆에 있던 중국교포 신용화 씨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장애인들의 연주를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진짜 백미는 지금부터였다. 사랑부 지체들이 직접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빨간 장미와 수건, 성경책, 안산M센터 소개 자료가 담긴 비닐 봉투를 선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백 마디 말보다 강력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양재 사랑부 지체들이 건넨 선물을 받아든 외국인 이주민들의 표정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천사같이 환한 미소로 선물을 받아들고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리고

어떻게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 K-festival을 준비하게 됐을까. 지난해 여름캠프가 시발점이었다. 여름캠프 주제 성구였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도전 받은 것. 그때부터 열방을 품었다. 사랑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



양재 사랑부가 안산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때 양재 사랑부 전인진 교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땅 끝이 어디입니까?”

그 순간 안산이 떠올랐다. 각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 땅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양재 사랑부에게 전도는 낯설지 않다. 다년간 쌓아온 전도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주도 청암재활원을 방문해서 전도했고, 2008년 여름과 겨울캠프에는 안양 난치병센터 발달장애인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했다. 2010년에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난타공연과 노방전도를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밤벨 연주와 노방전도를 했다. 사랑부 부모들도 지난해 맞춤 전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이라서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리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사랑부도 선교의 도구라는 확신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장애인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랑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번 전도집회에서 수화공연 대표를 맡은 정범준 학생도 그랬다. 그가 처음 사랑부에 왔을 때는 정말 견잡을 수 없었다.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사랑부 장영우 학생의 부모 장윤성, 홍미애(분당B공동체) 성도는 이번 전도집회에서 2시간 넘게 호랑이와 판다인형탈을 쓰는 고생을 감내했다. 홍미애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영유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약속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역칼럼



김철민 장로
(양재 사랑부담당)

사랑부 지체들이 사랑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 사랑부 E군이 유치원에서 교회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E군 친구들이 엄마들에게 교회 가자고 조를 정도다. D양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도한 친구 셋과 늘 같이 사랑부 예배를 드린다. 얼마 전 S양과 함께 처음 교회에 온 형제는 한 번도 사랑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E군, D양, S양 모두 안 믿는 집안의 첫 열매들이다.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른다.

작년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사랑부 선생님들이 사랑부 친구들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밤벨연주였다. 그때부터 사랑부 친구들이 밤벨연주 연습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도 캠프 한 달 전부터 조를 짜서 하루 한 끼 릴레이금식기도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랑부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마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썼다. 이 모든 것이 여름캠프를 위한 준비였다. 여름캠프가 시작되고 사랑부 친구들이 석양의 바닷가에서 피서객들에게 밤벨연주를 들려주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전단지를 돌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금년 여름캠프도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

했다. 누가복음을 필사했고, 다시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올 가을에는 체육대회 대신 안산에서 전도집회를 열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다시 밤벨연주 연습을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한 달 전부터 금식 릴레이기도로 힘을 모았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방해하는 영적세력을 이기고자 두 주 전부터는 일부 선생님들이 매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모여서 기도회로 전도집회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도집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허브공동체 국악팀이 해금과 가야금 연주를 해줬고, 권사님들은 아름다운 한국무용을 보여주셨다. 예

수제자학교(JDS)의 캄보디아 자매팀과 베트남 형제팀은 몸 찬양을 해주었다.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멋진 밤벨연주를 했다. 부모님들은 공연장을 정리하고, 안내 혹은 사진을 찍었다. 떡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다. 장미꽃과 성경책, 안산M센터 소개 자료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나눠줄 수 있었다. 모두가 숨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사랑부 친구들이 외국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사랑부 친구들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증인들이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눌 줄도 안다. 다 같이 전도했더니 더 신나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었다.

특집대담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회선교부 일.하.세. 사역팀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사명

크리스천들이 더 성실하고, 탁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일.하.세. 아카데미 개최 ... 일과 영성의 균형, 대처방안 고민하고 나누는 장(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팀이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사회선교부 소속 '일.하.세. 사역팀'이다. 일.하.세.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의 뜻이다. 일터에서 그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영성을 회복하고, 일터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목표와 비전이다.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학교가 11월 26일부터 3주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그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심적, 구조적,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해결책을 공유하는 장이다. 일.하.세. 아카데미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황재명 목사, 정운오 장로, 김성주 팀장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일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재명 목사(이하 황):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최근의 영적흐름입니다. 교회, 가정, 일터 순으로 영적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과 영성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2년 전부터 파고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CEO포럼'을 통해서 일터사역을 해오다 올해 1월 사회선교부 소속 '일.하.세. 사역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정운오 장로(이하 정):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주 팀장(이하 김): "직장에서 추구하는

"일터사역이 또 하나의 성령운동이 되길 소망"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야"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 일터에 대한 소명 깨닫기를"

김성주 팀장
(강남A공동체)

목표나 개인의 직업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율을 추구하고, 승진을 원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인거죠.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회식을 할 때였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술을 권하기에 "저는 그리스천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상사가 "김 과장, 나 안수집사야. 김 과장처럼 술 한 잔도 안마시면 영업은 어떻게 하고, 접대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되물더군요.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대칭입니다. 만약 내가 술을 마시는데 다른 순원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술을 드셨잖아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의식주 문화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는 물이 부족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으개서 물 대신 즙을 마셨습니다. 특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 포도즙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실 게 없으면 드십시오. 그런데 마실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드십시오.'

정: "술 마시는 행위를 먼저 않는 사람의 입

장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회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문화를 공유하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식에서 나만 그리스천이라고 술 한 잔도 안 마신다면 조직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조직의 문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회식 때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을 심분 이해합니다. 그분들을 무작정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직장 내에서 직급이 오르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술을 안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면 오히려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평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더욱 신경 쓰고 직장에서의 행동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인관계에 신경 쓰고,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화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로 직장생활에 소홀하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역에만 매달리다 세상이 단절되거나 대인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만약 예배와 회사일이 겹친다면 저는 주일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교회 가지 말고 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하.세. 사역팀의 기본적인 철학도 바로 이것입니다. 일 자체가 예배입니다."

황: "단편만 보지 말고 양면을 봐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후 몇 시까지 나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많지 않더라도 야근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다뤄야 하고,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입니다. 직

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 "거기에 탁월성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하게 일하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누가 되는 행동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 "성실과 신실을 놓치면 창세기 3장처럼 원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에덴동산에 두시면서 처음 하신 명령이 '경작하라'입니다. 경작하라는 뜻은 '일을 하라'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일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삶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이 예배가 되면 성실함, 탁월함,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예배 드리는 모습이 월요일에 실현되는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경건한척 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일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결국 일을 통해서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동감합니다. 직장동료, 거래처 사람 등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 "전 세계적으로 일터신앙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만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면 출세나 성공을 바라게 되고, 결국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

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언제 가장 신바람 나게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시면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전 3:9-12)고 답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교육이나 가치관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터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 "기독교가 자꾸 고립화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결국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됩니다. 일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그것이 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하.세. 아카데미'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 "직장에서 겪는 갈등, 신앙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 "일.하.세. 아카데미는 기독교 세계관을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카데미에서는 바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천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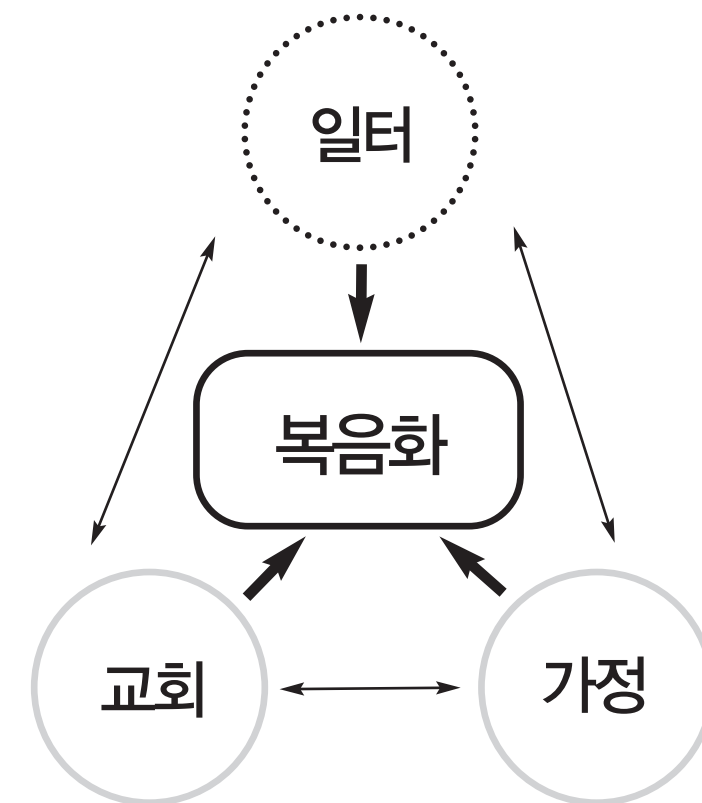
정: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답을 한참 동안이나 찾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하.세. 아카데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 "일.하.세. 사역에는 세 가지 사역방향에 있습니다. 첫째, 일터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취업난, 고용불안, 은퇴 후 생활대책 등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일터의 복음화입니다."

신우회를 섬기는 분들을 모아서 산업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멘토링도 해 줄 계획입니다. 셋째, 일터의 영성 회복입니다. 일.하.세. 아카데미가 또 하나의 성령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세. 아카데미가 성령운동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대담 진행: 김남원 부장, 정라: 정현주 기자

바로 그 곳이 하나님 나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
일이 곧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이 되어야



일.하.세. 아카데미

일터에서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직업관, 문화관, 성공관, 재물관 및 인간관계 등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학교.

일정: 11월 26일~12월 10일(매주 토, 3주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 오후 3~8시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으로 살아가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일터 문화, 일터에서의 성공,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관계

등록: 아이스쿨(school.ionnuri.org)
문의: 김성주 팀장 010-3504-8394
소진영 총무 010-8668-4314

정: "일이 곧 예배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공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황: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서는 안



전국 8개 도시에서 진행된 '연탄365'의 버스킹 공연.

CGNTV, 버스킹 밴드 '연탄365'와 전국 전도 투어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버스킹 홀리데이' 오픈

CGNTV KNOCK와 버스킹 밴드 '연탄365(이태원 준섭이, 고정민, 최금비, 주영광, 우혜원)'가 전국 전도 투어에 나섰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성된 '연탄365'는 벌써 1년째 주말 밤마다 이태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다. '연탄365'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4박 6일 동안 전국 투어를 떠났다. 대전,

해남, 부산, 강릉 등 전국 8개 도시의 거리에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영상을 CGNTV 카메라에 담아 예능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풀어냈다. 멤버들의 진솔한 간증도 담았다. '연탄365'의 전국 전도 투어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6일) CGNTV KNOCK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13일과 20일에는 2편과 3

편이 공개된다.

한편, 올해 1월 론칭한 CGNTV KNOCK 페이스북 페이지는 누적 조회수 678만을 기록하고 있다. 모바일과 웹에서 차세대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문화 콘텐츠를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정인순 장로 천국환송예배

8대 당회서기, 복지재단, 선교재단 등 섬겨



정인순 장로가 소천했다. 향년 89세. 지난 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국 환송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고인을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30년 동안 헌신

적으로 섬긴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기억했고, 조향진 장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모습은 잊히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정인순 장로는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책임과 모범을 다했다. 온누리교회 8대 당회서기를 역임했고, 온누리복지재단, 선교재단 출범에도 큰 기여를 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석자 권사, 자녀 정명준, 정동준, 정선화, 자부, 윤영옥, 윤지영, 사위 정창석, 손주 정유숙, 정혜지, 정혜운이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com

"소망 회복하고, 본질 전하는 교회되길"

호치민 온누리 5주년 감사예배 및 말씀집회

호치민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영철)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3일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를 초청해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말씀집회를 개최했다. 말씀집회는 10월 25일 까지 3일 동안 이어졌다. 집회에

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교회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준 목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 김현준 기자

다음 주일은 일대일데이!

키그림 그리기, 이벤트 시상식 등 풍성한 행사

다음 주일(13일) 일대일데이를 맞아 일대일사역본부가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표지에 있는 키그림그리기 행사는 국내 10개 캠퍼스가 공통적으로 여는 행사다.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캠퍼스별 기념행사는 다음과 같다.

서빙고는 내가 생각하는 일대일의 정의 공모대회 시상식, 사진촬영, 연명별 성경암송대회, 일대일 변천사, 책자, 교재 번역본 등 전시, 일대일 제자양육 관련 상담, 양재는 일대일 제자양육, 대외사역, 양육자반

봉사자 초청 기념예배를 드린다. 부천은 일대일 제자양육사진 전시, 포토존 설치, 우수양육자 시상, 대전은 포토존 운영, 일대일 동반자 및 대학청년부 양육자 모집, 평택은 성경암송, 강동은 일대일데이 노방전도, 양육자와 동반자 사진 촬영, 동반자 모집, 양지는 성경 암송, 양육자와 동반자 사진촬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의 행사를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52기 내적치유학교 모집

제52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를 주제로 한 이번 내적치유학교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파주제자수양관에서 진행된다. 1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

nuri.org)에서 하고, 회비는 15만원이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역기능 가정의 치유와 회복,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 등의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 010-5543-8002

/ 김영선 기자

양재 Basic QT 주일오후반 일정 변경

양재 Basic QT 주일오후반 일정이 변경됐다. 11월 13일 개강하고, 오민목사가 강의한다.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다.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2852-5468

김영옥 집사, 미국세라믹 학회 석학회원 선정 영예

김영옥 집사(서빙고 일대일위원회 팀장,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국세라믹학회 펠로우(Fellow, 석학회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4일 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펠로우상을 수상했다. 김 집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 정현주 기자

여성사역 전도집회 풍성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여성사역 전도집회가 각 캠퍼스별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서빙고는 11월 16일 본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가을 콘서트', 부천은 12월 7일 본당에서 'Christmas For You', 수원 11월 30일 본당에서 '2016 여성전도집회 For you', 대전은 12월 14일 본당에서 '여성전도집회', 남양주는 12월 21일 본당에서 'Christmas For You', 평택은 11월 23일 본당에서 찬양집회 '아름다운 예배자', 인천은 12월 7일 6층 비전홀에서 '이웃초청 전도집회', 강동은 12월 21일 12층 본당에서 이민욱 목사님과 함께하는 '친구'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30분이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19일 양재 사랑홀에서 '가을에 받은 편지'를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17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 이소정 기자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공연

깊어가는 가을 풍성한 공연이 이어진다. 11월 13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양주 예방교회에서 '이주민선교음악회'가 열린다.

17일 오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는 맘앰맘사역팀이 미혼모를 돕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클래식, 재즈, 위십댄스, 난타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사랑합창단과 장로합창단의 정기연주회도 열린다. 온사랑합창단은 11월 19일 오후 3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장로합창단은 12월 3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11월7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 땅에 부어지도록
- 11월8일(화) 협력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실행위원들 영육 간 강건하기를
- 11월9일(수) 초청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 11월10일(목) 스태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 11월11일(금) 이재훈 목사님, 강사,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11월12일(토) 중보기도자들과 봉사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 11월13일(주일)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도록

■ 부모교육 전문가 기고



/ 유 하워드 성도(도곡 영아부교사,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저자)

하나님과 통(通)하고 부모와 통(通)하고

잘 풀리는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통(痛)을 통(通)으로 극복한다. 위사람과 동료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기 스스로와도 소통할 줄 알기에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다. 그 아이들이 통(通)의 기본을 대부분 부모로부터 배운다. 내가 아는 탁월한 학생들 중 한 명도 부모로부터 소통의 기술을 배웠다고 했다.

큰맘 먹고 대전쪽 기러기(자녀 학업을 위해 가족은 대치동 전세, 가장은 직장)가 가까운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 아빠가 되기를 자청한 분이 계셨다. 주말이나 되어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왔다. 그런데 막상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는 고교생 딸의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답답하고 슬픈 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버스 시간에 맞춰 전화했다. 딸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없었다. 아빠도 아무말 못하는 자신에게 놀라고, 딸은 아빠의 첫 전화가 웃기면서도 슬프게 느껴졌다고 기억했다. 결국 아빠는 이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아빠가 더 잘할게. 우리 딸 힘내라.”

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고등학교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3분 동안 말없이 전화기만 들고 있던 아빠가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했다. 서로 아무 말은 안했지만 아빠는 딸과, 딸은 아빠와 충분히 통했던 것이다.

대치동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소통과 부모와의 감정소통(하통부통)이 잘 되는 아이가 결국에는 잘 풀리는 것을 목격한다. 그런 아이는 자존감이 건강하다. 대세에 기죽지 않는다.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맞고도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

부모들이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통하고, 부모와 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통하고 부모와 통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오는 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중학교 시절 아이가 하나님과 통하고 부모와 통하는 징검다리를 놓으려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 유아세례 간증



/ 박민기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아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에 다니고, 청년의 때를 보내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지금도 문득 찬양을 들으면 어릴 적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의 삶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져 갔다. 회사에서나 집에서 늘 분주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쳐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도 조금씩 사라져 갔다. 신앙이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 은찬이가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육아는 만만하지 않았다.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밤마다 우는 은찬이와 씨름하기 바빴다.

그러기를 1년, 은찬이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 속에 살고 있었다. 늘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은찬이 생각에 빠져 미소 짓고,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하고, 혹시나 불편할까봐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알아서 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

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를 하곤 했다. 그런데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서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했다.

지금껏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함에 보답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하는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은찬이를 사랑하겠습니다.”

■ 아베스맘(사별자모임) 세미나 간증



/ 박평화 성도(가명)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2012년 11월, 하나님께서 남편을 하루아침에 추수해가시고 나는 2년 동안 홀로 되었다는 상실감과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빠져 살았다. 나 혼자도 벅찬데 사춘기에 갑자기 아빠를 상실한 아이들까지 돌봐야 했다. 먹고살기 위해 남편과의 이별을 애도 할 겨를도 없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아이들도 2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작년 1월, 부친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온누리신문을 보고 아베스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석했다. 사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모임에서 만난 지체들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

“먼저 엄마가 변해야 한다. 엄마가 회복되어야 자녀가 회복되고, 엄마가 변한 만큼 자녀도 변한다. 자녀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매일 말씀을 들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첫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민한 둘째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더 주게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위태위태하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은혜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앞날에 대해 불안으로 걱정이 많은 첫째와 다니엘 21일 기도를 함께 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다. 21일 동안 우리는 함께 무릎 꿇었다. 아이도 하나님께 내면의 두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낱알이 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요즘은 매일 시편을 묵상하고, SNS에 올리고 있다. 그 아이가 매일 아침 보내준 시편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네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너는 정의로 굳게 서겠고, 압제는 네게서 멀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공포마저 저 멀리 사라져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사 54:13-14).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싶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우리 가정처럼 말이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안정식 성도(중종로공동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대일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 사람은 양육자, 또 한 사람은 동반자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어제 순심방, 목사님 말씀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오늘 새벽 큐티 ‘마태복음 25장’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등에 기름을 가득 준비
양육자가 묻는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소리 듣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웨일인가, 나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주님 주신 달란트로
이 시점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
	잘 하였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아침에 눈뜨면 예수님 생각	
하루 세 번 식탁을 대하면서 예수님 생각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길을 갈 때도,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의 걸음 따르리!
설거지를 할 때도, 출근할 때도 주님 생각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운 일도 돌파해 나간다
버스, 내 앞좌석에 앉은 아줌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예수님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두근	

장로칼럼

십자가와 종의 영성



정상건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일본CGNTV의 지난 10년을 회고할 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신신당부를 잊을 수 없다. “CGNTV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을 본받아 일본 교회와 일본 기독교인들을 위해 철저히 종이 돼야 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 CGNTV는 이 같은 하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오늘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미네노 다츠히로 목사님 등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CGNTV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기에 “CGNTV가 친구를 넘어 일본의 한 가족과 같이 됐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한국 기독교인과 일본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언어와 문화, 역사, 정치경제 및 사회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이자 공동체 일원이다. 일본 CGNTV 직원들 18명의 면면을 살펴볼 때 한국인과 일본인이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월 평균 프로그램 제작편수가 약 400편에 달한다. 일본어 방송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이들이 일본 전역을 돌면서 ‘10분 강단’과 ‘말씀 강해’ 등을 비롯해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며 초교파적으로 2,000개가 넘는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21세기 함께 하는 일본선교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어 속담에 “돌 위에도 3년(石(いし)の上にも三年, 고생 끝에 낙이 온다)”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단단하고 차가운 돌도 3년 동안 그 위에 계속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것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끈기 있게 참고 계속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뜻이다. 일본CGNTV는 앞으로 10년,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본 교회, 일본 기독교인들을 섬기는 변함없는 ‘종’이 될 것이다.

2011년 11월 일본방송선교의 중요성과 필요를 확인한 일본 기독교인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일본CGNTV 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10월 13일 일본CGNTV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앞서 일본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 후원회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확인했다.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CGNTV를 적극 돕기 위해 지역별 모임을 상설화하고 재정 모금에도 보다 앞장설 뜻을 밝혔다. 이는 놀라운 변화다. 아내 이종여 권사와 함께 나는 24차례의 일본 러브소나타뿐 아니라 일본 CGNTV의 각종 개국 기념행사 등에 개근해왔다. 솔직히 말해 일본 교회가 언제 온누리교회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러브소나타의 많은 부분을 일본 목회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충분히 감당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 이번 10주년 모임에서 일본 목회자들이 일본 CGNTV를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발언할 정도가 됐다니 감개무량하다.

일본CGNTV의 주인공은 일본 교회다. 앞으로는 한국 교회는 돕되 일본 교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본CGNTV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일본 교회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헌신하는 이들이 더 많아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일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시대를 더 잘 준비해나가게 될 것을.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와 CGNTV는 변함없는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권사칼럼

16년 전 그날의 감동



김영민 권사
(가정사역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주위 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모습이다.” 어느 사회심리학자의 글이다. 이 글에 우리 가정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잘 담겨 있다. 해마다 깊어가는 가을이 오면 16년 전 가을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큰딸은 중1, 둘째 아들은 초3이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갔다. 시댁식구와의 갈등과 사춘기 자녀양육 어려움이 겹쳤다. 일종독인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심리적,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다. 우리 부부를 안타깝게 여긴 순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하가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가훈 첫째 날, 찬양 한 소절이 내 마음을 울렸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을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밀려왔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탕자의 아버지가 지치고 힘들었던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맞이해 주었던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부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듯이 포근하게 안아주셨다. 하가훈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원리, 부부대화, 자기에로의 여행(내적치유), 괴롭고 짜증(성격유형검사), 부부의 성(性)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꼭 배워야 할 주옥같은 강의들이었다. 결혼 16년차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의식 속에 밀어 넣었던 아픔과 불안, 불편했던 감정들의 표면이 드러나는 힘

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더 많이 싸웠지만 다른 때와 달랐다.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장(場)이었다. 그때 내 삶에 적용하리라고 다짐했던 것이 있다. 부부가 서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과 먼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남편과 친밀한 대화가 회복되었다. 연애했 때처럼 달달하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집에서 가족들이 보내는 시간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더없이 행복하다.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부부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젊은부부학교(Marriage Builder)-다시 떠나는 신혼여행’ 사역을 섬기고 있다. 우리 부부가 참여한 하가훈은 결혼 10년차 이상 된 부부, 젊은부부학교는 결혼 12년 이하의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와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학교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현재 젊은부부학교 44기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가정들이 벌써부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회복된 선배들이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아이스콜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결혼해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부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하가훈과 젊은부부학교, 부부코칭 아름다운동행에 더 많은 부부들이 지원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대한다.

문의: 010-4202-8067

신앙에세이



강미향 목사
(S브릿지공동체 담임)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네 단어가 있다. “고맙다. 감사하다. 잘할 거다. 괜찮다”가 그것이다.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시고 나면 이 네 단어가 가장 그리울 것 같다. 어머니께 전화로 식구들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들려오는 한 마디가 내 마음을 울린다.

“너희들은 잘할 거다.”

잘 하는 지, 못하는 지 보지도 않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신다. “바빠서 전화 자주 못해 죄송하다”고 하

면 “바쁘게 전화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용돈 많이 보내드리지 못해 속스러워 하면 “너희들도 힘든데 감사하다 잘 쓸게”라고 하신다. 또 나의 부족함과 실수로 힘들어하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며 응원의 말을 잊지 않으신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준비돼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할 때면 “잘 하려고 하지 마라! 사는 대로 묵회해! 너는 내가 볼 때 잘 살아 왔잖아”라며 격려해 주신다. 내가 잘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해 주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묵회 중에 낙담될 때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잘하려고 하지마라. 편하게 해!”

그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소리 같다.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 이 말을 하나님

의 소리로 되뇌일 때마다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 믿음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위대한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언어다.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듯하다.

나는 10년 전부터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이 생명의 언어를 변하지 않고 흘려보내주시기에 함께 사는 것이 버겁거나 힘들지 않다. 친정 부모님에게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졌을 때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을 느낀다. 믿음의 가정들이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생명의 언어만 쓰기를’ 선포하면 좋겠다.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힘들고, 짜증나고, 질타할 일들이 있고, 감정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취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친절한 말은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을 씻는 명약이다. 마음이 곤고해져 있을 때 힘이 되는 말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신다. 우리가 사랑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이다. 성령의 윤행유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녹아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생명의 언어가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쟁반에 금사와 같은 적절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언어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인생의 손익계산서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뻔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들이 눈을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게 할 뻔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생을 통해 얻은 것과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당시 사회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이 아무리 최선의 상태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상태에 도달했을 지라도 그것이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육체일뿐입니다. 육체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상태를 다 합해도 손해의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최선의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대대로 이어진 믿음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합니다.

부활, 십자가 그리고 또다시 부활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2절).

세 가지 명칭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개들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거짓할례를 받은 사람들 조심하라는 표현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불렀던 명칭을 율법을 지키므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최선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하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과 냉철한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험과 거짓, 악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손익계산서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선물로 얻는 의, 값없이 받는 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익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손해로 분류한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10~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순서가 특이합니다. 우리의 교회력에 따르면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에는 부활이 먼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고난을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죄수의 죽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보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유익한 항목으로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인생의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익의 항목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익으로 여기는 것을 손해의 항목으로 넣어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지도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심오한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작성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냉철한 신앙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믿음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7

‘처녀가 낳은 아이’와 메시아

이사야 7장 10~13절을 보면 하나님께 표적 구하기를 거절한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초래할 결과를 설명한 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를 선포하는 대목이 나타난다(14절).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적 계시이다.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를 막론하고 젊은 여인을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을 보면 처녀(virgin)로 번역하지 않고, 단순히 젊은 여자(young woman)라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알마’가 처녀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고 있지만(창 24:4, 출 2:8, 시 68:25, 잠 20:19), 기원전 2~3세기 70여 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The LXX)에서는 ‘알마’를 숫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리아를 ‘동정녀’(마 1:23)라고 한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

의 조상들이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 구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이사야 7장 14절의 표적은 앞으로 다윗 왕조(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과 메시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계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다시 한 번 확증되고 있다.

그 태어날 아이는 그의 어가에 정사를 메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사 22:22), ‘다스리는 자’ 곧 왕으로 오실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미 5:2). 장차 왕으로 오시는 아이의 이름은 첫째, 기묘자이다. 이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동정녀 탄생)과 공생애 기적,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암시한다. 둘째, 모사로 ‘가르치는 자’ 또는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메시아의 온전한 지

혜와 통찰을 지칭하는 표현이다(사 11:2).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메시아의 신성과 전능하심(엘-사다이)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메시아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빌 2:6).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며,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며(엘-올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요 1:9~10).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shalom’(평화)을 이루는 것임을 보여준다(사 53:5, 눅 2:14, 골 1:20).

이사야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선포하는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의 정치·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갈릴리 지역부터 비추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사 9:1). 이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해변 지역인 나팔리와 스블론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럼 그 ‘아이’가 예수 그

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11절), “이새의 뿌리에서”(10절) 한 짝이 나올 것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전한 평화의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사 11:1~9), 그 메시아 나라를 향해 세계 각처에 남아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사 11:10~16). 성경은 이 예언이 장차 교회의 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다. 28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한다. 처녀가 아이(메시아)를 낳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버스킹 홀리데이

KNOCK | 버스킹 밴드 '연탄365'의 전국투어 콘서트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거리의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다섯 멤버들의 좌충우돌 Holyday

KNOCK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NOCK 페이스북



KNOCK 유튜브



1편 오늘 오픈!

2편 11월 13일

3편 11월 20일